

재림의 징조 4: 이슬람의 확산과 예멘 난민 문제

지금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 (*) 지난주에는 이슬람의 확산 및 테러, 예수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증거 이란 핵무기, 시리아 중심의 이슬람 난민 사태, 북한이 심각하게 관련

(*) 이슬람 확산이 우리와 무관한 줄 알았으나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

난민 문제

(*) 난민(Refugee): UN은 인종, 종교,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 베트남 전쟁 난민, (*) 6.25 전쟁 흥남 부두 난민 사태, 과거에는 주로 공산국가 탈출 난민 문제: 그런데 현재 난민은 이런 일시적 정치 요인보다는 각국 국가 기능의 실패로 인한 만성적 사회 혼란과 구조적 경제난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과 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한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 혁명 이래 난민 수는 6년 연속 증가해 왔다.

(*) 즉 현 시대 난민 문제의 핵심은 이슬람 난민

난민 발생국에선 독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파 간·종파 간 내전이 지속되거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극단주의·폭력 조직이 득세하고 있다.

(*)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6년째 기록 경신

전 세계 난민 6850만 명...2차 대전 난민보다 많다, 전 세계 인구의 1%

중동·아프리카에서 3분의 2...최근엔 남미 좌파 국가에 늘어나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이유: 세계경제포럼(WEF)이 2016년 12월 그리스와 터키에 머물고 있는 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럽으로 이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조건'이었다.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다. 그리스 난민의 73%, 터키 난민의 53%가 독일과 스웨덴 같은 잘사는 나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 유럽 국가들은 당초 중동 혁명으로 인한 '정치 난민'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옛 식민지의 주민인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책임감도 있었다. 난민은 요양사, 건설노동자 등 유럽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인력 부족 해결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이 폭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1년 시리아 내전, (*) 지금까지 600만 명의 난민, 내전 초기 시리아인들은 어떻게든 국내에 머물렀지만 이때부터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생계형 난민의 쓰나미'가 시작된 것이다. (*) 원흉 아사드와 김정은

유럽에서는 인정을 발휘하여 이들을 수용함.

(*)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과거 나찌 독일의 만행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이들을 수용함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지금부터 이야기는 유럽의 이슬람 난민

2016년 쾰른에서 일어난 난민들의 독일 여성 집단 성폭행, 2017년 18세 소녀 토막 살해 같은 사건이 반난민 여론에 불을 질렀다.

(*) 게다가 이슬람의 배타적인 문화는 여전히 유럽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위협적이었다. (*) 이슬람으로 인해 유럽은 국가 안보와 정체성 위기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 (*) 특히 여성들의 강간, 소녀들의 강간 사태로 나다니기가 무섭다.

(*)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엔 독일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대한 반발감이 크게 작용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2000년 평균 8.5%에서 지난해에는 24.1%로 늘었다.

(*) 미국에서도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하며 당선됐다. 당선되자마자 이슬람 국가 시민들 여행 제한

우리나라 상황

(*) 올 들어 제주도로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예멘 난민 519명이 쏟아져 들어오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들어 온 것은 처음
이에 6월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청원이 올라갔지만, 청원 시작 4일만에 신청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국민 청원 글 페이지가 갑작스레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소수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 독자적인 난민법도 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여론 조사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우리나라 국민 약 90%는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약 과반은 이들이 '진짜 난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민 대다수는 제주도 무사증 제도와 난민 심사 기간 축소 등 전면적인 난민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최근 중동 예멘에서 제주도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한 500명 가운데 91%가 남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제주도민 89.5%가 외출도 자제할 정도로 치안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全) 국민은 85.7%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특히 제주와 전국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의 90% 이상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왜 예멘인가? 아랍의 극빈국

(*) 아라비아 반도의 전략적 요충지, 알카에다의 전초 기지, 보수적 이슬람 국가인 예멘은 알 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bin Laden)의 조상들이 살던 고향이었다.

2010년경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과 예멘 감옥에서 탈옥한 거물들이 재집결하면서 예멘 알 카에다 조직은 부흥기를 맞았다.

인구: 2800만, 아랍어, 수도는 사나, 거의 대부분 이슬람, 면적 53만 제곱킬로미터(우리나라 10만)

내전: 북예멘, 남예멘, 1990년 북예멘에 의해, 남예멘의 분리 독립 요구, 계속되는 내전

좌파와 우파의 견해

좌파: 불쌍하니 무조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박OO, 하OO 등

우파: 위험한 문제이니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조경태 의원이 6월 28일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난민수용에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이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 동안 실시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결과, 입건된 국제범죄자는 868명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가 난민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4개국의 반 난민법과,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 합법 판결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유럽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부실한 난민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유명 연예인 만화가의 인터넷 설전: 정OO, 윤서인 대결(미펜튼, 조이라이드), 요즘 유튜브, 윤튜브 자기들이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무조건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

외국의 난민촌에 가서 돕는 것은 OK, 그러나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난민은 위험하지 않다?

난민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난민을 돕던 독일 사회민주당 출신 여성 난민인권 운동가가 6월 21일 무슬림 이민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 언론 빌트(Bild)는 난민인권 운동가 소피아 뢰슈(28)가 6월 21일 실종 신고 하루 만에 스페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시간으로 25일 보도했다.

더 큰 문제

KBS, 중앙일보 등 메이저 언론, 3년 뒤 3년 뒤에는 12만 7천명d1 될 수도 있다.

이유: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난민 신청은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가능한데, 신청하는 순간 6개월가량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제기와 소송을 하면 최대 수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 뒤에는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다 제주도에 무사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빠르게 예멘인 사회에 퍼짐.

예멘인 수백 명이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와 난민 신청을 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대다수 이슬람 난민이 일단 같은 종교를 가진 말레이시아로 감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아프리카·중동계 난민 15만 명이 있는데 이들도 한국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라 취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동계 난민들은

1차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뒤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90일 동안 다른 나라를 물색해야 한다. 그

결과 가장 호락호락한 곳이 제주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 난민의 경우, 예멘인처럼 직항(直航)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올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해결 방안: 일본의 사례

남의 대륙 문제인 줄 알았던 ‘난민 수용’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과거 유럽처럼 난민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일본처럼 국제기구에 난민관련 기금을 대폭 내놓되 난민은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쓸지, 입장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다.

2017년 일본은 난민신청자 1만9629명 중 20명(0.1%)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2016년에는 1만901명이 신청해 28명이 난민지위를 받았다. 난민 신청이 늘수록, 인정률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대신 일본은 유엔난민기구 등에 9000여 억 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세계 4위 수준의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

그리고 무사증 입국 자체를 막아야 한다.

헌법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무조건 난민을 받아들이는 헌법 개정 반대해야 한다.

무엇을 배우는가?

난민은 거의 다 이슬람 전체주의 국가들, 남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온다.

북한 2500만 동포들의 인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자유 시장 경제가 얼마나 좋은가?

반드시 이 체제를 지키고 난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해야 한다.

성경은 무어라 말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단 조건이 있다. 그 나라에 들어와 그 나라의 질서를 존중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룻기,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정착한 뒤 후에 다윗의 이버지 오벧을 낳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 (*) 룻의 약속: 1장 16-17절

결론

확실한 난민은 도와야 한다.

그런데 난민 문제는 일본처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들여온 뒤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

유럽 전 국가와 미국, 심지어 중국, 러시아를 보라. 안 받는다.

(*) 심지어 좌파들의 우상인 중국도 안 받는다.

그들의 문화권에서 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이슬람 난민은 심히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역사적 데이터: 이들은 수용하는 국가의 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려 하며 반드시 테러와 강간을 일으킨다. 말레이시아 등에 살도록 재정적 도움을 주되 들어오면 안 된다.

미국의 한 연구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간 일했던 자기 친구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무슬림이 좋은 미국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다음과 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 아니요. 왜냐하면 무슬림은 오직 아라비아의 월신(月神)인 알라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 아니요. 왜냐하면 이슬람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알라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꾸란 2:256).

성경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오직 자기들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제공하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과 꾸란에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오직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기 위해 몸을 돌려 바라보아야 하는 메카에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이슬람에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나 유대인 등과는 친구로 지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전멸과 미국의 멸망을 가르치는 물라들(Mullahs,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큰 사탄으로 가르칩니다.

가정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네 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내가 자기에 불순종할 때 그 아내를 때리고 매질하도록 배우기 때문입니다(꾸란 4:34).

지적 측면에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미국 헌법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무슬림은 성경이 부패되었다고 믿습니다.

철학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무함마드, 그리고 꾸란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이슬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무슬림 정부는 독재 정부이거나 전체 정치 정부입니다.

영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밑에서 한 나라’(one nation under God)라고 선포할 때 크리스천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분이지만, 무슬림의 알라는 단 한 번도 하늘의 아버지로 간주된 적이 없으며 꾸란에서 알라를 가리키는 99개의 탁월한 이름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우리는 이 나라(미국)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수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한 이슬람 문제가 바로 내 문제다.

구원받고 아이들 간수하고 성화의 삶을 살며 애국해야 한다.

애국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국경을 지키는 것이다.

(*) 이 어려운 때가 우리들의 전성기,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간다.

(*) 성경 구절